

전북도지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우유 전달

전북 전주 아동시설에 1년간 공급



전북도지회는 지난 5월 4일(수) 삼성휴먼빌(전북 전주 소재)을 찾아 사랑의 우유를 전달하였다. 전달식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협회 심동섭 전북도지회장, 유청열 도지회 수석부회장, 석병오 도지회 부회장(군산낙우회장), 한문규 김제낙우회장, 김기석 전북도지회 사무국장, 장선수 청년분과위원회 전북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기증행사를 통해 약속된 공급량은 백색시유 1일 130팩씩(주 평균 5일 공급) 1년간에 달하는 양으로, 금액으로는 4천만원 상당이다. 공급대상

은 삼성휴먼빌 내 만 18세 미만의 보육원생들을 비롯, 쉼터 자립원생 등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낙농산업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내 낙농가들이 직접 나서 도움을 주신데 정말 감사하다”고 밝히고, “전북도는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숙 삼성휴먼빌 원장 역시 “영양섭취가 중요한 성장기 아이들이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흔쾌히 선행을 보여주신 전북지역 낙농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협회 심동섭 전북도지회장은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안외축산 정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낙농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작년 7월 전북도청에 국산 탈지분유 240포를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전북도지회는 앞으로 사업규모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동보육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출장형 6차산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고창군 낙우회, 지역내 저소득층 아동에 1년간 우유 지원

전북 고창군 낙우회(회장 김투호)는 지난 9일 고창군청에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저소득 아동을 위해 '사랑나눔 우유 전달식'을 가졌다.

고창군 낙우회는 70여명의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00명에게 지역에서 생산하는 1,900여만 원 상당의 멸균우유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김투호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나눔 활동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규칙적으로 우유를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며 고창군에서도 지역 낙농업 발전과 소외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강 남양유업 낙우회, 경주시 독거노인 위한 우유 전달

경주 남양낙우회(회장 신강태)와 안강 남양낙우회(회장 최광식)는 지난달 29일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경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우유를 전달했다. 이날 우유는 회원들이 150만원을 모아 직접 생산한 우유로 만든 남양유업 멸균우유 130박스로, 지역 독거노인에게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날 전달식의 참석자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지역에 어려운 노인 분들을 도와주게 돼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